

“정교분리 원칙 무시...사회혼란 우려”

■ 기독교와 가정당의 출현=기독교당이 독립 기독교민주연합(이하 기민당) 등 유럽의 개신교 정당을 모델로 삼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당의 전신인 '한국 기독교'는 17대 총선 당시 득표율 1%도 넘지 못했을 정도로 부진했다. 지난 2월 28일 창당된 기독교당은 기독교민주복지당(대표 최수환 장로)과 사랑실천당(대표 전광훈 목사)의 합당으로 이뤄졌다.

기독교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공중파 방송 등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를 대표로 영입했다. 조용기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목사들의 지지도 이끌어낸 기독교당은 이번 총선에 3명의 지역구 출마자와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등 총 13명의 후보를 냈다.

가정당은 지난 3월 4일 통일교를 배경으로 1만5000명 당원이 모여 총선 출정식을 갖고 245개 전체 지역구에 출마자를 공천했다. 13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도 발표

✓ 종교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18대 총선은 기독교당(대표 최수환, 이하 기독교당)과 평화통일가정당(총재 박정환, 이하 가정당) 등정이 크게 눈에 띈다. 특히 통일교가 내세운 가정당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245개 지역구 전체에 공천을 할 정도로 대규모 활동에 나섰다. 기독교당은 이름처럼 개신교가 주축인 정당이다.

했다. 가정당 정책의 목적은 가정의 행복, 남북통일, 세계평화 실현이다. 특히 이번 총선 핵심공약을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에 두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 ▲도덕 정치 구현 ▲통일 한국 건설을 주도하는 가정당 등을 꼽아 특정 종교의 이미지를 희석하고 있다.

■ 불교의 정치참여 신중해야=교계에서도 18대 총선을 즈음해 정당이 탄생했다. 장주 스님(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이 창당한 자유평화불교연합당(이하 불교연합당)이 그것. 장주 스님은 지난 14대 총선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불교연합당은 이번 총선에 출마자를 내지는 않았지만 불자들에게

정당 표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을 보면 이때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관측된다.

개신교와 통일교 등 종교의 정치세력화에 불교도 동참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불교 뿐 아니라 어느 종교도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다종교인 한국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웃종교를 자극해 종교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 정치외교학자는 “다원화된

개신교 기독교·통일교는 가정당 창당 전문가들 “불교 정치세력화 신중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종교 정당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 정당 정치는 정책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파생된 정당은 정치적 목적 외에 선교 목적을 따는 경우가 있어 유권자 스스로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불교정책기획단 김수일 정책실장은 “정교분리는 헌법상 규정된 사실로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실장은 “종교는 정치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용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계에 서 정치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인재발사를 통해 재가정치인을 양성하고, 출가수행자는 사회지도자로서 자리 매김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본론사 지키는 참된 불자 양성이 중요=불교의 정치참여 여부를 떠나 전문가들 모두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조차도 불자라고 밝히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다. 이번 총선 출마자 가운데도 직접 묻기 전에는 불자라고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심지어 끝까지 불자임을 숨기는 후보자도 있다.

그 원인을 두고 이웃종교인에 관대한 불자들과는 달리 불자에게 관대하지 못한 이웃 종교인들의 편협함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한국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수일 정책실장은 “교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불교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조계종 포살결계법 시행 환영”

교단자정센터 조계·태고종 중회 모니터링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모니터링팀은 3월 18~29일 열린 조계종 제176회 임시중앙총회와 3월 20일 열린 태고종 제94회 중앙총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팀은 26일 조계종 중회에 대해 “포살결계법 제정과 대응하 반대 및 티베트 사태 평화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은 환영하지만 총무원장 스님의 금품제고 논란은 법 제정

취지를 반감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성목 스님의 63인이 발의한 중회개정안이 찬성 42표, 반대 29표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발의 따로 투표 따로’라는 이중적인 행태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링팀은 “포살결계법” 제정에 주목하며 “정기적인 포살과 갈마를 통해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 대중 공익을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회 개최 당일 총무원장 스님이 조선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법 제정 취지를 반감시킨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고종 중회에 대해서는 28일 “순천 선암사 폭력사태 징계자 23명을 전원 특별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해될만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발로참화가 있어야 한다”며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11가지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종단 원로 중간간부 연석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된 ‘1사찰 1선행운동’은 태고종 사찰의 생활 불교적 특성에 맞는 좋은 제안”이라 환영하며 “지도층의 의지가 담긴 실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원로·중진 스님들 ‘삼성특검 종결 청원’ 논란

조계종 원로·중진스님들이 삼성특검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로의원 밀은 스님 등은 3월 24일 조준용 삼성비자금의혹사건 특별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종회의장 지승 스님 등 중진 스님 22명이 서명했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3월 28일 “청원서의 서명은 조계종 원로회의의 공식인장이 아니다”며 철회의 의사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이론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총정자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월경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보살계 산림법회

● 입재 : 2008년 4월 10일(음. 3월 5일) 목요일 ● 회향 : 2008년 4월 12일(음. 3월 7일) 토요일

불보종찰 통도사는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계율을 설하기를 1363년을 이어서 한 해도 수계의 향화를 거른 적이 없는 계율의 근본도량인 금강계단입니다.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계단에서 무자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선근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 금강계단 / 전계사: 중산 해남 대화상 / 동참금 : 50,000원

문의 및 접수처 : 화엄전 055)381-1288, 종무소 055)382-7182, 각 말사(암)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오전 8시 ~ 9시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관했던 쇠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으니

- 범망경 중 -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아산 정우 합장

www.tongdosa.or.kr

